

# 갑오전쟁이 중국 및 한국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류더빈 지린(Jilin·吉林) 대학교 교수

갑오전쟁에 대한 논의와 성찰은 2014년 중국 학계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서, 중국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인들은 동북아 각국의 운명과 국제 질서를 바꾸어 놓은 갑오전쟁을 통해 더 많은 교훈을 얻고자 한다. 현재 중국 학계는 거대한 중앙의 제국이 약소국가에 패한 이유를 분석하는 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 중국의 군사전략, 체제의 효율성 및 문화적 한계점 등의 불리한 조건을 검토할 뿐 아니라, 1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의 시각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인접 국가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갑오전쟁의 전승국이다. 이 전쟁을 기점으로 일본은 무력으로 인접 국가의 자원을 약탈하는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수포로 돌아갔지만 "탈아입구: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에 속하는"(脱亚入欧) 사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가져왔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과 한국은 갑오전쟁 이후 비슷한 역사를 경험하였고, 1992년 중한 수교 이래, 양국 사회 간 긴밀한 교류를 통해 운명공동체를 이루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귀속적 인식 구축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갑오전쟁, 중국, 한국, 동아시아공동체, 정체성

## I. 중국 학계의 갑오전쟁에 대한 성찰

갑오전쟁에서 중국의 패배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2014년 중국 학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 군부 측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해외 매체들은 중국 '매파(鷹派)'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전략문화촉진회 상무부회장 겸 중국 인민해방군인 나윈(罗援) 소장의 의견을 중국을 대표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14년 3월에 『신화통신』에 "갑오전쟁 패전 원인 10항"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하였다: ① 나라의 손상(国殇)은 낙후한 정치체제에 의한 것이었다. ② 전쟁 패배의 원인은 탐욕과 부패에 있다. 부패를 없애지 않으면 싸우기 전에 이미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③ 국가가

강해지려면 군대가 강해야 한다. 군대가 강하지 않으면 부국은 될 수 있어도 강국은 될 수 없다. ④ 군대를 강화시키려면 반드시 관념의 혁신이 필요하다. 낙후된 생각들로 인해 실패하는 것이다. ⑤ 강한 군대의 핵심은 군대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용감하지 못한 군대는 흩어진 모래와 같다. ⑥ 강한 군대를 세우려면 우선 장비부터 강화해야 한다. 장비는 양과 질 모두 우세해야 한다. ⑦ 강한 군대는 항상 준비되어야 하며, 준비된 군대만이 후환이 없다. ⑧ 강한 군대는 전체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작은 단점이 전체적인 패배를 초래할 수 있다. ⑨ 강한 군대는 반드시 영활한 전략과 전술이 있다. 검이 남보다 못하다면 검술은 남보다 나아야 하는 것이다. ⑩ 전쟁에 응해야 화해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담판의 자리에서도 얻기 어려운 법이다(Xinhuanet, 2014/03/10).

이 외에도 중국 갑오전쟁 실패 요인에 대해 더 면밀히 분석한 중국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위명(魏明, 2014)은 중국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비교했다. 위명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사회 변혁의 관점에서 갑오전쟁 전의 양무운동과 메이지유신은 다르다. 메이지유신은 전면적인 변혁을 통해 군사적 변혁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근대화를 실현했다. 이에 비해, 양무운동은 군사적 변혁에 한계가 있었고, 청나라 군대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군사 형태를 바꾸지 못하였다. 역사적 사실로 보면, 양국의 다른 군사적 변혁이 초래한 군사력의 차이가 갑오전쟁에서의 서로 다른 운명을 결정지었다. 레이이(雷颐, 2014a)에 의하면 ‘청조’ 체제와 베스트팔렌 체제의 차이로부터 출발한 갑오전쟁은 ‘청조’의 최종적인 붕괴를 낳았으며(雷颐, 2014b), 갑오전쟁 당시 중국은 “비근대국가”이고, 일본은 이미 “근대국가”였으므로 중국의 참패가 우연이 아니다.

한편 종합적인 관점에서 갑오전쟁을 성찰하는 학자들도 있다. 주봉(周峰, 2014)은 세계 체제의 시각으로 갑오전쟁을 연구했다. 그는 갑오전쟁의 발발은 일본 국내 자본주의 확장의 필연적 결과라고 하였고, 동아시아 조공체제의 몰락과 일본 부상의 결과로서 열강들의 극동지역 쟁탈 및 중국 식민지화를 촉진했다고 보았다. 정진강(鄭金剛, 2014)은 갑오전쟁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중일 양국의 운명을 바꿨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적인 지역 정치구도와 향후 역사적 행방을 바꾸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갑오전쟁에 대한 성찰은 중일 관계의 현재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다오위다오(钓鱼岛) 등 영토 분쟁과도 관계가 있다. 유강영(刘江永, 2014a)은 일본이 갑오전쟁을 통해 다오위다오를 부당 점유한 후에 1896년 9월, 대만을 식민지로 통치할 때 따쭈시로코가(古贺辰四郎)가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 다오위다오를 조차하여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의 ‘포츠담공약(波茨坦公告)’과 ‘카이로 선언(开罗宣言)’에 의하면, 일본은 반드시 다오위다오를 포함한 대만 및 부속된 모든 섬들을 중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일본의 소위 사인섬주(私人島主)의 지위와 권리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 정부는 당시 따쭈시로코가(古贺辰四郎)가 다오위다오를 식민지로 개발한 행위를 일본이 ‘선점한’ 것으로 보는 한편 실제적으로 다오위다오를 지배하는 국제법의 준거로 삼고 있으며, 심지어 위조 증거를 만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따쭈시로코가(古贺辰四郎)가 가장 빨리 섬에 도착한 시간을 갑오전쟁 전인 1884년으로 앞당기는 역사적인 조작을 시도하였다. 유강영은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함께 거론하며 앞으로 60년 중일 관계의 전망은 일본이 미래에 어떤 길을 걷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刘江永, 2014b). 시현덕(习贤德, 2014)에 의하면 ‘마관조약(马关条约)’의 체결은 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본이 장장 반세기에 달하는 대만 식민통치를 초래하게 했다고 말했다. 대만 독립사상과 일본 우파세력의 결합은 대만-해남도의 형세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전쟁의 우환을 조성했다.

갑오전쟁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력과 일본 학계의 갑오전쟁에 대한 관점도 중국 학자들의 관심의 초점이기도 하다. 강커실(姜克实, 2014)에 의하면 갑오전쟁 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대국 부상이라는 민족의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삼국간섭’의 굴욕을 경험하면서 일본은 서방 열강들의 안중에는 자국이 보잘 것 없는 졸병과 다름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 민족의 투지를 증가시켰고 러시아에 대한 복수라는 전쟁의 화근을 남기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일본으로 하여금 군국주의의 길을 걷도록 했다. 갑오년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근대 대국의식과 군국주의의 원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경(李永晶, 2014)은 전쟁사회학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일본이 중화문명과 근대 서구문명에 대한 오인을 하도록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도록 했다고 한다. 초우신(翟新, 2014)에 의하면 갑오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해 자국의 권익을 확

장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 민간에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협력과 동맹을 위한 아시아주의적 논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일본은 국제적 형세에 따르며 대외적인 발언 내용을 빈번하게 반복했고, 동시에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다. 즉 주류 사상 형태와 대외적인 정책을 무시하는 일본의 주변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했다. 양동량(杨栋梁, 2014)에 의하면, 갑오전쟁부터 러일전쟁까지 10년 동안, 일본의 중국에 대한 멸시적 인식은 처음 형성될 때부터 고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우월성은 “요녕의 귀환에 대한 삼국간섭”으로 인해 좌절을 겪은 후, 경자사변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심화(提升)’ 과정을 겪었다. 일본은 “자타 인식(自我认识)”을 기반으로 하여, 경자사변 전에는 수비를 전략(以守为攻)으로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선의적인 면을 보여’ 주었다. 이미 획득한 중국에서의 권익을 공고화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열강과의 ‘협조’를 통해 중국의 주권을 잠식하고자 했다. 경자사변 후에는 중국 영토 확장에 가장 방해가 되는 세력을 없애기 위해 러일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를 재패하여 중국 동북 남쪽 지방을 식민지 통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단정지, 방강영(段廷志·方刚营, 2014)은 당대 일본 학계 연구자의 정치적 입장, 관찰 시점, 연구 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갑오전쟁의 성격과 원인, 승패 이유에 관한 논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관점들 간의 충돌은 최근에 들어서서 더욱 과열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파 역사관 연구 성과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탐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무인(武寅, 2014)은 갑오전쟁이 일본 백년 국가정책의 발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을 출범으로 시작된 중일 관계의 후퇴는, 중국 학계의 갑오전쟁 120주년 행사의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 학자들의 갑오전쟁에 대한 성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는 몇 년 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사실 중국 학계가 갑오전쟁에 대한 성찰을 시작한 것은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일 간 사회 형태 및 역량 등의 차이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다. 갑오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일 양국의 직접적인 무력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일 및 동북아 지역에서 내부적으로 형성된 무역과 투자의 상호의존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갑오전쟁에 대한 성찰은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겨주었는데 중일 간, 한일 양국 간의 상호적 정체성(认同)과 지역의 집단적인 정체성이 바로 그것이다. 갑오전쟁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은 동북아 지역의 공통적인 인식에 관한 연구가 정체된 점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 II.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 연구의 침체

처음으로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때, 일본과 한국의 학자와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국 정부도 동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일 관계 악화 이후,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침체기를 맞이한다. 사람들은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흐름에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약 10년 전 중국 학계에서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4년 유신천(俞新天, 2004)의 글 “동아시아 정체성(认同感)의 움직임 - 문화적 시각으로부터”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는 더 이상 문화를 경제 발전의 요인으로 보지 않고, 경제 발전을 이해하는 계기와 제도의 구축을 강화시키는 배경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문(李文, 2007)은 아시아공동체 인식을 구성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역 내 국제 관계를 개선하고 동아시아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 체계,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동아시아 지역 내의 밀접한 경제 관계는 동아시아공동체 인식 구축에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동시에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대륙의 거리로 인해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동아시아 역사 발전의 특수성에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에 관한 글에서,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동아시아 문화를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동아시아 문화는 유교문화(儒家文化) 중심이다. 동아시아 전통문화에 대해서, 혹은 유교문화가 현재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도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 전통문화와 근대적 경제 모델의 상호작용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생명력과 활력을 구성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손영춘(孫英春, 2009: 58-64)은 전통 동아시아 문화는 세계적이고 현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동아시아 전통 가치관은 현대의 동아시아 문화에 새로운 의의와 가치를 지니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시아 전통 문화가 현대의 동아시아의 공통 가치관으로 전환되려면 도전이 필요하다. 바로 어떻게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간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학자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축과 동아시아 정체성의 형성은 일본 자국의 인식 및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김향해(金香海, 2008)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서 일본의 침략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가 핵심이라고 말했고, “동아시아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은 화해의 가장 유용한 경로이며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질서 수립의 기초라고 했다.

사실상 중국 학자, 한국 학자, 일본 학자들이 함께 동아시아 역사를 정리한 적이 있었고, 이러한 동아시아 역사관이 한동안 중국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얼마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학계에서 이성적, 객관적, 인도적으로 다시 한중일 3개국이 모두 인정하는 동아시아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자국에 대해 갖고 있는 국가적 지위와 신분에 관한 인식은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 연구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한 유교문화가 일본의 의식 속에 있는 지역적 정치 위기감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유교문화가 일본의 대외 침략의 야망을 억제시키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유교문화 속의 충군, 계급관념과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 관념을 어느 정도 일본 신도교에 융합시켰는데, 이후에 이러한 관념으로 인해 대외 침략을 천황에 대한 충성이라고 간주하게 되었다. 일본이 1592년 조선을 침략할 때의 중국 명나라 정부의 항일 원조로부터 중일 갑오전쟁까지 이러한 사상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다. 중국 학자들은 일본의 대외 전쟁을 일괄하는 은밀한 논리가 있다고 여긴다(韩东育, 2013).

중국이 열강의 침략을 받았을 당시, 동양과 서양의 문화 충돌이 생겼을 때, 일본의 문화 정체성은 서양(유럽과 미국) 문화 쪽으로 기울었다. 메이지 유신 시기의 일본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泽谕吉)는 『문명론개략』 등의 저서에서 서양 세계는 문명 세계이고, 일본, 중국이 대표하는 동아시아 문화는 반 야만세계이므로 일본은 반드시 이러한 반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문명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탈아입구’ 이념을 제안했고 이는 오늘까지도 일본이 자국을 보는 중요한 정체성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자신을 서양 국가로 간주하고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 국가의 문명을 따르며 역사 발전 속에서도 유럽처럼 강대국이 되기를 바랐다. 이것이 일본이 갑오전쟁을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자신을 동아시아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부터, 자국의 신분을 서양 국가로 인식할 때부터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사고와 동아시아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에는 자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오늘날 일본의 일부 우파 학자들은 후쿠자와 유키치 시대 때 생성된 탈아입구 사상을 이어받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일본은 주변국인 중국, 한국과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기 원치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저해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중국학자 유흥화(刘兴华, 2004)는 지역 정체성 영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귀속적 정체성, 응답적 정체성과 기능성 정체성이 그것이다. 연속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 간의 역사, 문화 등 관계를 만들어나가면서 형성되는 것이 귀속적 정체성이고,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 짓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생성된 인식은 응답적 정체성인데 다시 말하면 타자에 대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다. 기능적 정체성은 어느 지역, 국가 간에 경제교류 등 영역 간 상호작용의 필요로 인하여 생성된 지역 정체성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현재의 동아시아를 본다면, 지금의 동아시아는 기능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귀속적 정체성으로 발전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동아시아 전체의 귀속적 정체성 수립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연대는 실제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가 기능적 정체성으

로부터 귀속적 정체성으로 발전하는 방법이 존재하는가?'다. 첫 번째 문제에 답하려면, 문화적 연대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문화적 연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가치 그 이상을 발휘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유럽연맹이 결성되기 전에 문화적 연대가 밀접한 서유럽 국가 간에도 여러 차례 전쟁이 필요했다. 문화의 연대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동아시아 정체성의 수립을 살펴보면, 전통이 비슷하고 문화적 연대가 밀접한 것은 공동체의 구성에 부분적인 계기를 제공했고, 세계화 시대에 특히 공공외교의 발전에 기여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따르는데, 이 두 국가는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다. 비슷한 문화 속에서 국가 간의 갈등을 없애는 일은 쉽지 않지만, 민간 사회의 교류를 통해 공공외교로서 국가 간 접근과 화해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연대의 가치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자신에 대한 국가적 지위와 신분 인식이 동아시아 집단 인식과 거리가 있을 때, 중국과 한국 간의 협력과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정체성의 형성, 그리고 지역 공동체 구축은 중국과 한국 두 국가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 III. 중한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의의

최근에 중한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정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양국 민간교류 활동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서울 방문은 중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북경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동안, 중한은 중한자유무역협정(한중 FTA)을 체결했다. 중한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의의는 경제무역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간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학계에서도 한국을 재발견하고 있고 동북아 지역 공동체 구축에서 한국이 발휘할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우선, 한국은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국가다. 한국과 중국에서 예의 바른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한국 드라마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윤리적 관계를 볼 때, 중국 전통사회의 그림자를 본 듯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중국인이 미국인과 미국 영화를 볼 때는 느낄 수 없는 감정들이다. 따라서 특히 중국에서는 중한 관계 민간교류 발전의 토대가 예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한국에 중국 유학생과 중국 관광객이 급증한 것, 그리고 ‘한류’문화가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 등에서 증명된다. 둘째, 한국은 전통사회의 현대화를 비교적 잘 실현한 국가로 여겨진다. 한국 자동차 산업 및 전자 산업, 문화 창조산업은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고, 중국인들의 진심어린 존경을 받았다. 예전에 중국인들은 한국 자동차의 성능에 대해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 서구 국가의 자동차가 중국 거리에서 자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한국 자동차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유럽, 일본 등의 자동차와 동등한 신뢰를 얻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가전제품은 중국의 1000만 가구에 보급되었다.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성공한 추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중일 관계의 악화와 일본 전자제품의 쇠락이 한국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기도 했다. 셋째, 양국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중국인의 한반도 평화통일 대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북한과 한국이 서로 격리된 대립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대가족으로 융합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중국, 북한, 한국 세 국가가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통 이익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상 중일 관계의 후퇴가 다른 의미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들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부분 학자들은 중국이 동맹을 맺지 않는 비동맹 정책을 포기하고,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체결하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한국과 동맹을 맺을 것을 주장한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외교 전략은 중한 관계 발전의 여지를 넓혀주었다. 시진핑이 주석이 된 후, 중국 주변국 외교에 신경을 많이 썼다. 2013년 10월, 중국 중앙정부는 주변국 외교 업무 좌담회를 개최했다. 시진핑은 주변국가 문제를 연구하고, 주변국 외교 사업을 입체적이고, 다원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관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중국의 주변국 태세, 주변국 환경, 그리

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주변 국가와의 경제무역 교류가 빈번해졌고, 상호작용도 더 긴밀해졌다. 이는 우리에게 시대의 변화에 맞춰 더 적극적으로 주변국 외교를 실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국과 주변국 외교의 기본적인 방침은 ‘以邻为善 以邻为伴, 睦邻, 安邻, 富邻’(이웃을 선하게 대하고, 이웃과 동반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지내며,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 역자 주)이며 성(誠), 혜(惠), 용(容)의 이념을 구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을 대할 때 성심성의껏 해야 하며 더 많은 친구와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혜호리(互惠互利)의 원칙으로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고 긴밀한 공동이익 네트워크를 만들어 양국의 이익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야 한다. 주변 국가가 중국의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중국도 주변 국가와의 공동 발전으로부터 동력을 얻어야 한다. 포용적인 사상으로 함께 공동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더욱 개방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지역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이념의 전파를 위해 중국이 솔선수범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 지역과 국가가 준수하고 지향할 공동이념과 행위준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에 개최한 중앙외사사업회의에서 시진핑은 새로운 국제적 형세에 맞추어 새로운 외교전략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들과 운명공동체를 만드는 것, 친(親), 성(誠), 혜(惠), 용(容)의 외교이념을 지향하여, 이웃을 선하게 대하고(以邻为善), 함께 동반하며(以邻为伴), 화목하고(睦邻), 안정적이고 평화롭게(安邻) 지내는 것, 마지막으로 이웃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주변 국가들과 상호협력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13년의 담화와 비교해보면, 시진핑의 2014년 담화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바로 주변국간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운명공동체는 중국 주변외교 정책의 새로운 방안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에 활력을 주었다.

“운명공동체”의 형성은 다른 성원들도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야 하며, 성심성을 다한 실제적인 행동도 필요하다.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하나의 신흥시장국가로서 GDP는 세계 2위다. 중국은 한국의 인접 국가로서 잠재력이 무한한 시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변혁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정치적으로 현

대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현대화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 국가 안전의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핵문제, 일본 극우세력과 군국주의 문제 등은 중한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로서 서로 협력 대응하여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중한 문화의 교류와 융합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세계화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은 모두 APEC 성원국으로서 G20에 속한다. APEC과 함께 G20은 지금 G8을 대신하여 전 세계의 경제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국제 조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한 양국의 협력은 세계화에 주는 의미가 크다.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인식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지만, 중한 양국은 ‘운명공동체’가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만약 중한 간 정체성과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전체 동아시아 정체성의 추진이 가능하며, 이는 현재 동아시아의 기능적 정체성을 귀속적 정체성으로 전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 내부적으로도 중국과 한국의 두 공동체로부터 다변화된 공동체로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갑오전쟁이 발발한 지 120년이 지났다. 갑오전쟁의 발발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조공체제의 몰락과 전근대적인 정치체제의 소멸을 가져왔다. 갑오전쟁 이후 일본의 무력침략 전략인 소위 ‘대동아공영권’도 20세기 중반부터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의 저항으로 와해되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 중심 정치체제는 이제 역사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갑오전쟁이 120년이 되는 즈음에, 우리는 다시 갑오를 성찰하며, 이후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의 토대 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아시아공동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탄생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4년 12월 22일 | 심사일: 2015년 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5일

## 참고문헌

姜克实. 2014. “日本人现在如何看甲午战争.” 当代社科视野, 8期.

- 金香海. 2008. “东亚和谐社会的构建与日本的历史认同.” 『中国人民大学学报』, 2期
- 罗援. “甲午战争惨败十大教训.” [http://news.xinhuanet.com/mil/2014-03/10/c\\_126242456.htm](http://news.xinhuanet.com/mil/2014-03/10/c_126242456.htm)(검색일: 2014. 4.20)
- 段廷志·方刚营. 2014. “当代日本学者眼中的甲午战争.” 军事历史, 3期.
- 雷颐. 2014a. “甲午战争:“天朝”的最后崩溃.” 世界知识, 16期.
- . 2014b. “甲午战争与现代国家建构.” 文化学刊, 4期.
- 武寅. 2014. “甲午战争:日本百年国策的负面开端.” 『中国社会科学报』(7月 25日)
- 孙英春. 2009. “东亚传统的当代呈现与东亚价值观念重构.” 载黄大慧主编. 『构建和谐东亚:中日韩关系与东亚未来』, 58-64页.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习贤德. 2014. “甲午战争割台与日本殖民统治遗毒.” 『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 6期.
- 杨栋梁. 2014. “甲午战争后日本对华知行的演变(1895~1905).” 东北亚论坛, 5期.
- 魏明. 2014. “从社会转型的角度反思甲午战争的失败.” 『海军工程大学学报(综合版)』, 3期.
- 刘江永. 2014a.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期
- . 2014b. “安倍晋三与伊藤博文对华政策比较研究.” 史学集刊, 1期.
- 俞新天. 2004. “东亚认同感的胎动 — 从文化的视角.” 世界经济与政治, 6期.
- 刘兴华. 2004. “地区认同与东亚地区主义.” 现代国际关系, 5期
- 李文. 2007. “构建东亚认同: 意义、问题与途径.” 当代亚太, 6期.
- 李永晶. 2014. “甲午战争与日本的世界认识.” 『学术月刊』, 7期.]
- 郑金刚. 2014. “放宽历史视野看甲午战争 — 新世纪以来有关中日甲午战争的反思.” 『北京日报』(2014. 4. 28).
- 周峰. 2014. “世界体系视域下的甲午战争再反思.” 东南学术, 4期.
- 翟新. 2014. “甲午战争后日本亚洲主义演变的两个特征.” 安徽史学, 4期.
- 韩东育. 2013. “日本对外战争的隐秘逻辑.” 中国社会科学, 4期.
- Xinhuanet. 2014. “China Focus: ‘Space Odyssey’: China’s Aspiration in Future Space Exploration”(March 10, 검색일: 2014. 4. 20).

---

**Abstract**

## Reflections on the Significance of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 for China and Its Neighbors

Debin Liu Jilin University

---

Many commemoration activities took place on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first Sino-Japanese War. Not only did the academic institutions take part but society as a whole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People wish to draw a lesson from the war that fundamentally changed the fate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the regional order. For the most part, the Chinese academic circles focused on the lessons of why the giant—China—was defeated by a small country of Japan. They especially examined China's outdated military command system and the low morale of her military forces while putting much emphasis on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 current worsening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fueled hatred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reflection. I, however, believe that China should reflect beyond the war and draw some lessons for a lasting academic dialogue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in a situation of worsening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ina and between Japan and Korea.

The Japanese victory of the Chinese-Japanese war in 1894 also initiated Japanese Militarism to deal with China, Korea and other East Asian states and consolidated its ideology of 'Departing from Asia for Europe.' This stance is still a supporting foundation to the evolution of the Japanese current national identity. On the other hand, similar experiences of China

and Korea since the Sino-Japanese war in 1894 and the fast growing interdependenc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since 1992 has promoted more sharing of values and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ways towards developing a prosperous community. This has also consolidated the social foundations for an attributive collected identity for East Asians as a whole.

**Keywords |**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 China, Korea, East Asian community, identity